

광주 마북동 '탄약고 이전 공사' 재개된다

NEWS

2025년 3월 31일 월요일

'민·군공항 이전사업' 표류속 6월 본격 재추진 서광주로·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등 문제 해소 국립공원 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 추진도

수천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표류하고 있는 광주 마북동 탄약고 이전 사업이 오는 6월 본격 재추진될 전망이다. 50년 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공공 탄약고가 이전되면 주민 민원 해소는 물론 도시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서구 금호동·마북동 탄약고를 광산구 신촌동 제1전투비행장 인근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공사비용 증액 예산(40억원)을 추가 편성하는 것으로 전

해졌다. 국방부는 이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예산이 마련되면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탄약고 이전 공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증액 예산은 국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시설특별회계를 통해 확보할 것 인지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약고 이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 지난 2023년 6월 중단 이후 2년 만에 재개되는 셈이다. 광주시와 국방부는 1975년 금호동·마

북동 일원 37만㎡ 부지에 설치된 탄약고를 군공항이 있는 제1전비 인근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추진했다. 총 사업비를 3262억원으로 책정하고 이전 지역의 주민 토지 보상과 기초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비의 82.2%인 2681억원이 투입됐지만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사업'에 발목이 잡혀 중단됐다.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이전 부지 지반 공사까지 마쳐 시설 공사만 남겨둔 상황이었지만, 공사는 잠정적으로 보류됐다. 이전이 추진되는 광주 군공항으로 탄약고를 옮긴 뒤 군 공항이 옮겨지면 매몰 비용이 발생한다는 국회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당시 국회는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에서 탄약고를 이전하면 새로운 부지에 추가 비용을 들여 탄약

고를 또 건설해야 한다"며 공사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지역에서는 "이미 투입된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공사 중단이 더 큰 매몰 비용을 낳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고,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과 별개로 탄약고 이전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국방부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인근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주거 지역 진출입로 개설 제한 등 주민 피해도 잇따랐다. 실제로 마북동 공공 탄약고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은 올해 50년을 맞이한다. 50년 전 탄약고가 들어설 당시에는 도시의 가장 외곽에 위치했지만 지금은 광주의 행정 중심지역인 상무지구가 길 건너편에 있고, 대규모 주거단지인 금호지구 건설되면서 탄약고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는 상

황이 됐다. 50년 동안 보호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고 각종 개발행위 역시 제한되면서 탄약고는 주민들 입장에서 애물단지이자 가장 큰 민원 대상이 됐다. 더욱이 보호구역에 건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군부대장(공군 제1전투비행단장)과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소규모 주차장 건설조차도 승인을 얻기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건설한 도로가 준공 승인조차 받지 못한 채 임시 도로로 전락하는 가 하면, 하루 수만대의 차량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여초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2015년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위해 건설한 왕복 6차로의 'U대회 진정 중심지역인 상무지구가 길 건너편에 있고, 대규모 주거단지인 금호지구 건설되면서 탄약고는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는 상

광주로와 연결하려는 각종 도로 건설 계획도 국방부와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하지만 오는 6월 탄약고 이전이 다시 추진되면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돼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금호동·마북동 주민과 현재 개발되고 있는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 중심지역에 탄약고가 위치하면서 이 지역 토지 소유자는 물론이고 도시 개발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전 공사가 완료되면 주민들의 불편과 각종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탄약고 이전과 함께 국립공원무등산 정상부 방공포대 이전 사업도 재추진한다. 시는 방공포대 이전 연구 용역과 주민 설명회 등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제3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 강기정 광주시장이 지난 28일 상무시민공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3회 광주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해 행사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생활이끄미' 출범

광주시는 '외국인주민 광주생활이끄미 지원활동기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광주생활이끄미 지원활동기단'은 광주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한국어와 외국어에 능통한 6개국(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 몽골, 캄보디아, 중국) 출신 외국인주민 10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8일 광산구 광주외국인주민지원

센터에서 열린 발대식은 활동가 임명장 수여, 통역서비스 실무 교육 등 순으로 진행됐다. 활동가들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외국인주민과 공공기관 등을 동행해 통역하는 것으로, 이번 교육은 박주경 호남대학교 영어학과 교수가 맡아 진행했다. 활동가들은 자신들이 입국 초기에 겪었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 입국한 외국인주민이 지역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일대

일 멘토가 돼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관광·병원·은행 등 기관에 동행해 언어장벽 없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상현 외국인주민과장은 "처음 한국에 와서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경험을 잊지 않고 나눠주기 위해 지원해준 활동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활동가들의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은 주저하지 말고 외국인주민지원센터(1644-3828)로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전남도, 108억 들여 천일염 산업 육성

전국 생산량의 91% 차지...신산업에 올해 첫 채염식

전남도가 올해 108억 원을 들여 생산부터 유통, 수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천일염 산업을 육성한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신안 태평 염전에서 풍년 생산을 기원하는 '2025년 첫 천일염 채염식' 행사가 열렸다. 천일염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이고 바람과 햇빛만으로 수분을 증발시켜 얻는 자연친화적 소금이다. 마그네슘·칼륨·칼슘 등 건강에 이로운 미네랄이 풍부하다. 특히 전남은 따뜻한 기후와 큰 조수간만의 차, 천연 갯벌 등 천일염 생산에 최

적화된 자연환경을 갖춰 전국 생산량의 약 91% (2024년 18만 9000t)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천일염 주산지이다. 현재 전남도는 천일염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고급화를 통해 천일염 가격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생산 자동화와 염전 생산환경 조성을 위해 자동채염기(6억 8000만 원), 전동대파기(6억 1000만 원), 이동수레 자동화 장비(1억 5000만 원)를 보급하고 대규모 생산단지(100ha·총사업비 30억

원) 등을 조성한다. 품질·위생 관리 및 장기저장시설 확보를 위해 포장재 지원(6억3000만원), 염전 바닥재 개선(45억8000만원), 장기저장시설(3억5000만원) 등을 지원한다. 국내 천일염 가격의 인정과 수출 확대를 위해 소금박람회 개최(2억 4000만원), 명품천일염 홍보(2억 3000만 원), 수출용 제품 개발 및 해외 마케팅(1억 4000만 원) 등을 강화한다. 특히 지난해 9월 개소한 천일염 종합유통센터를 본격 가동해 수출 천일염에 대한 컨트론타워 기능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광주 유치 총력

시, 신청서 제출...현장실사·심의회 거쳐 5월 선정

광주시가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엑스포 개최 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지방자치 30년을 맞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중심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개최 장소, 교통·숙박 등 행사 지원 계획, 광주만의 특징점, 개최 효과 등을 담은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엑스포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지방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논의하고 지역발전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로, 지방시대위원회, 중앙부처, 17개 시·도와 교육청 등이 공동

주최하는 국가 행사다. 강기정 시장은 앞서 광주시주민자치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자치 30년, 주민자치회 100% 전환의 원년인 만큼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고, 주민자치 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며 엑스포 유치를 선언했다. 광주시는 김대중컨벤션센터 등을 비롯한 지역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고 엑스포 개최 시기에 맞춘 지역행사 및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한 홍보, 모객 지원, 다양한 행사 구성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해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이다. 장승기 기자 sky@

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실증도시 구축 등 지역 맞춤형 정책과 첨단산업 발전을 주도하고, 전국 최초 전체 동주민자치회 100% 전환, 시민 중심 정책 평가박람회 연중 운영 등 지방자치의 모범사례를 만들어가고 있어 지방시대 엑스포 유치를 통해 광주의 지방자치 성과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올해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광주 2025 현대세계(강예인)양궁선수권대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개관 10주년 등 큰 축제가 줄지어 열리고, 숙박·교통 할인 특화 관광상품 등도 선보이는 만큼 지방시대 엑스포가 유치된다면 '2025 광주 방문의 해'와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장승기 기자 sky@

한전KPS www.kps.co.kr

세계로! 미래로!

Global No.1 한전KPS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열정으로
대한민국 전력설비 정비산업의 성장동력이 되어 온 한전KPS,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글로벌 리딩기업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세계 No.1 전력설비 정비산업 Grand 플랫폼 기업, 한전KPS

Global No.1

한전KPS의 역할 한전KPS는 국가경제의 핵심 기반산업인 전력산업 최일선 현장에서 발전 및 송전설비에 대한 무결점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전KPS는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고객사 전력설비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